



디지털인쇄 전문업체 선도업체로 부상한다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화는 더 이상 이슈가 되지 못할 정도로 끊임없이 가속되며 각 업계의 사업방식을 변모시키고 있다. 인쇄업계도 이런 조류에 자유로울 수 없음은 당연하다. 더구나 디지털 개념의 도입은 곧 신기술의 활용으로 여겨지는 실정에 정보산업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인쇄업계에서는 더욱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변화에 항상 능

동적으로 대응하며 동종업계 선두에서 디지털화를 부르짖는 기업이 있다. 동진문화사로 더 많이 알려진 동진에드컴(주)(대표 류운철)인데, 을지로 일대 경인쇄업체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와 시설, 많은 작업량을 보유한 업체로 평판이 자자하다. 지난 8월 동진에드컴(주)란 상호로 법인등록을 했지만 업체 간판은 '디지털프라자' 라고 돼 있다. 그만큼 디

지털인쇄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인쇄 CTP 도입 고부가가치 실현

동진에드컴은 후지제록스의 다큐테크 6135, 다큐먼트센터C450, 미쓰비시제조의 SDP-Eco1630II를 비롯해 PMX 양면 경인쇄기 4대, Elefax AP-EX1 제판기 2

◀ 동진에드컴은 경인쇄 CTP와 마스터기를 통해 보다 고품질의 경인쇄를 실현한다. ▼ 디지털프라자 간판을 달고 있는 동진에드컴의 모습과 류운철 대표이사



대, 호라이즌 정합기 15단 6대, 보성 1콤파 무선기, 한성 6콤파 무선기, 대호 컴퓨터 재단기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경인쇄 CTP SDP-Eco1603 II이다. SDP-Eco1603II는 실버 디지털플레이트필름과 SDP 인화지를 사용해 레이저 노광방식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고품질 인쇄를 실현할 수 있는 기종이다. 특히 실버판을 사용했을 경우 품질은 물론 내쇄력이 뛰어나 2만장 이상 인쇄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상태에 따라서는 5만장 가까이 인쇄할 수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란 점도 장점이다. 즉, 화학약품의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잔량이 다시 회수통으로 들어가도록 설계된 구조로 종래 실버 시스템에 비해 약품 사용량이 약 1/3에 불과하며 폐액량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인쇄 CTP를 사용함으로써 동진에드컴은 시간절약은 물론 경비절감의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경인쇄 CTP는 망점재현력이 좋아 기존의 수동 경인쇄 제품과의 품질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경인쇄에 비해 대체로 2배 이상 높게 작업단가가 책정돼 있다. 이는 장비

구입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하고 좀 더 많은 유지비용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보다 높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다는 뜻이며 동진에드컴이 경인쇄 CTP를 통해 고부가가치사업을 실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인쇄기 다크테크6135로 바코드 넘버링 작업

경인쇄 CTP의 도입과 활용만 가지고 동진에드컴을 '디지털프라자'라고 부르기에 부족한 구석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후지제록스의 다크테크 6135이다.

동진에드컴은 디지털 인쇄기인 다크테크 6135를 서울시 중구 초동의 작업장에 도입하여 지난 9월까지 일반 상업인쇄는 물론 상품권의 바코드 넘버링 인쇄 작업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위변조 사고에 대한 우려가 증폭됨에 따라 보안시설이 설치된 곳에서만 보안인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는 보안인쇄 전문업체이자 협력업체인 G&G사로 다크테크6135를 이전하고 직원 2명을 파견해 바코드 넘버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

다. 아울러 디지털 인쇄에 대한 가능성과 고부가가치성을 경험한 류 사장은 기회가 되는 대로 디지털 인쇄장비를 지속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역시 화두는 '디지털'

류운철 사장은 겁이 없고 욕심이 많으며 추진력이 좋아 적극적이고 전형적인 사업가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또한 동진에드컴 직원들은 류 사장에 대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에 민감하며 새로운 기술에도 신속하게 반응, 발빠르게 도입함으로써 사업에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입을 모은다. 이것이 동종업계에 몸담은 지 10여년 만에 동진에드컴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업체의 하나가 된 이유이다.

동진에드컴의 간판은 디지털프라자이고 문 옆에는 디지털 책자 전문업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유난히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눈에 많이 띈다. 이것이 류 사장의 사업방향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서 역시 화두는 디지털이다. 디지털 전문업체의 모범으로 성장하고 싶은 류 사장의 바람이기도 하다.

〈조갑준 차장〉